

## 데스크 시각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을 특유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지방을 통합·재편해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본궤도에 올려 놓았다. 이 대통령의 분권형 지역 육성책은 참여정부의 5대 초광역권 구상,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박근혜 정부의 지역 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권과 차원을 달리한다. 아예 행정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특례조항 무더기 삭제·수정 위기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통합에 나선 광주·전남을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광주사람은 그야말로 '찐'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판다 한 쟁을 한국으로 보내왔다. 요청하고 입식지를 광주로 지목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연장선에서 광주시민도 판다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대통령이 통치권을 쥐고 있는 지금이 광주·전남에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가 분명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월 전

## 은펜칼럼



김창균  
광주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인류가 문명을 이루었다는 첫 증거는 무엇일까.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선사시대 인류의 다리뼈'라고 말했다. 아생에서 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포식자를 피해 달아날 수도 없고 사냥도 할 수 없으며, 결국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만다. 그런데 부러진 뼈가 붙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누군가 걸어서 돌보았다는 뜻이다. 미드는 바로 그 선택,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를 감수한 지점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다친 이의 걸을 지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일이고 때로는 멈춰 서는 결단이었다. 결국 문명은 앞서 가는 이들의 성과가 아니라, 뒤쳐진 이를 포기하지 않는 관계의 지속성에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더 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 발전과 성장을 문명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사회를 진보한 사회라 불렀다. 하지만 문명이란

## 특별하지 않은 통합특별법

격 행정통합을 선언해 대의명분을 선취했다. 분리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고 미래 신산업을 일궈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끌겠다는 의지였다. 지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의였기에 '개문발자' (開門發車)에 대한 우려는 나왔으나 큰 반발은 없었다. 광주는 공전 하던 '5극3특' 체제의 물꼬를 뚫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합을 권유했음에도 머뭇거리던 충청권(충남대전)이 가세했고, 경북권(대구경북)도 동참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광주·전남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수록한 374개 특례에 지역민의 여망과 미래를 새겨넣었다. 순풍에 뒷 단 격으로 거대 여당이 당론으로 통합지원에 나서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기회이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광주·전남 통합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통합특별법안에 수록한 374개 특례 가운데 무려 110여 개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110여 개에 달하는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법안의 단순 숫자가 아니라 모두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특례조항이라는 데 있다. 특례가 빠지면 사실상 보통법이자 일반법이다.

강 시장은 엊그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정국을 짚웠다. 그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현재 특별법 발의안에 담겨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크다.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인 재정지원이 빠져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민

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무리를 해서라도 대폭적인 지원을하겠다"고 밝힌 게 무색할 지경이다.

## 대통령 국정철학 거스르는 공직사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 주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상황은 늑도록 않아 보인다. 전종현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광주가 직면한 문제를 냉정하게 짚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특례조항은 특정권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주어질 수 있고, 다수 권역에서 통합이 진행되면 비슷한 수준에서 제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칠게 요약하면 광주만의 특례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각각 2건씩 상정돼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법안 공청회에서 특례조항 불수용 건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답변한 것도 맹랑하다.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고 한 말 끌려서 생각해도 공무원들의 관료적 사고가 답답하기만 하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이제명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에 앞장 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해온 광주와 전남이 또 다시 특별한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정부 부처의 표면 때문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

## 돌아와도 된다는 날, 설날

정말 앞서가는 능력에만 있는 것인지, 어찌면 문명의 진짜 기준은 넘어진 사람 앞에서 오래 걸음을 늦출 수 있는가에 있지 않을까 싶다.

곧 설날이 다가온다. 설날은 흔히 '새해의 시작'으로 설명되지만, 이 명절이 품어온 본래의 의미는 출발선이라기보다 귀환에 가깝다. 설날은 잘해온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니었다. 한 해를 버텨낸 사람, 잠시 멈춰 서 있던 사람, 길을 돌아온 사람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시간이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었든 돌아와도 된다는 사회적 허락의 날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정준의 소설 '눈길'이 떠오른다. 도시 생활에 허기듯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아들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눈 쌓인 산길을 걸어 타지로 가는 아들을 배웅한다. 그리고 함께 걸었던 눈길의 흔적을 되짚으며 흙을 떠돌아온다. 아들에게 눈길은 지난날의 쓰라림이었지만 어머니께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을 담은 시간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회고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기다림 위에서 살아왔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

이 장면은 동행의 남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함께 걷지 않더라도 떠난 이후의 시간을 감당하는 선택, 말없이 남아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한 사람의 삶을 떠받쳐 온 토대였음을 소설은 조용히 드러낸다. 이것은 미드의 말과도 맞닿아 있다. 문명은 늘 나란히 걷는 데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보내고, 기다리고, 돌아올 자리를 남겨 두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설날 풍경은 이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명

절의 형식은 간소해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때로 안부는 곧 질문이 되고 질문은 비교로 이어진다. "요즘 뭐 하니?"라는 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니?"로 들린다. 아직 복지 않은 다리를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유를 묻고 결과를 요구한다. 회복 중인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종용이나 재촉보다는 기다림인데, 사회는 그 겨울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태도가 어느새 성과와 속도의 언어에 더 익숙해졌다는 방증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설날은 여전히 요긴하다. 가장 앞서 달린 사람을 축하하는 날이면서도 미처 도착하지 않은 이의 자리도 남겨 두는 날이기 때문이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시간일 때 설날은 문명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마거릿 미드가 말한 다리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선택 속에서 새로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관계를 놓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문명은 앞서가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선택에서 시작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절실히 다가온다.

이번 설날,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서는 것이고 돌아올 이의 자리 를 남겨 두는 일이다. 속도는 기록되지만 기다림은 기억으로 남는다. 누구에게 "괜찮다,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설날이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직 문명을 잊지 않은 사회일 것이다.

## 기고



이창수  
광주 남구청 인문도시팀장

광주 남구의 대표적 문화예술 중심지는 양립동과 사직동이다. 광주천 건너 북쪽을 향한 양립동과 사직동은 예전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반존이었다. 사직동에는 600년 전통의 광주향교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 있고 미래 불거리 먹거리가 책임질 시 간우체국 공사가 한창이다. 시간우체국은 시간을 초월해 가족 간 이웃 간 소통하고 관계의 끈을 틈틈하게 이어줄 다목적 인문 공간이다.

바로 옆 양립동에는 광주 근대기독교의 뿌리인 양립 교회가 있고 몇 걸음 더 가면 호남신학대학이 보인다. 호남신학대학 뒤편엔 서양식 선교사 사택이 용기종기 모여 있고 언덕 위에는 이국의 땅에서 현신과 사랑을 실천하다 연면한 선교사와 가족의 무덤이 있다. 언덕 아래에는 기독교 학교인 수피아여고가 있다.

지금 양립동은 골목마다 미술관이 있고 이장우·최승호 가옥 등 조선 양옥의 특징을 지닌 큰집 두 채가 있다. 양립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토터리에는 임단 때 활약한 정업 선생의 흐자비와 충전을 기려 세운 석상이 보인다.

## 인문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하다

다. 지엄한 양반의 흐자비 옆에 아무리 충전이라지만 개석상이라니 동기비는 저절로 웃음을 불러온다. 하지만 입구에 있는 오래된 능수버들 근처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으리라. 위안부였던 이 옥선 할머니를 기려 만든 평화의 소녀상은 양립동이 마냥 재밌고 즐거운 공간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양립동은 광주의 시인들을 기른 디행 김현승 선생의 사택이 있는 곳이다. 디행은 양립동에서 이수복·이성부·조태일·문순태를 비롯한 시인 소설가를 배출하였다. 소설가 문순태와 한승원이 절친이고 한승원이 광주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한강의 어린시절을 보냈다는 점에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광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께 떠나고 한동안 도심의 면두리로 전락한 양립동이 몇 년 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남구의 지속적인 투자로 평원마을과 공동체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된 깨달이다.

길 따라 여기저기 광주기독교의 상징적 인물인 최홍종 목사 기념관이 있고 그의 조카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중국의 위대한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의 생가도 있다. 정율성은 독립운동을 위해 형제들을 따라 중국으로 갔다가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만나게 된다. 김원봉은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하라는 의미로 부은이라는 이름을 율성으로 바꿔 주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연안송', '팔로군행가'를 작곡하는 등 중국인에게 존경받는 음악가가 되었다.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건너가 지금의 북한 인민군과

인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하였다.

그는 북한에서도 계파 간 갈등으로 오래 있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주은래의 비서인 정설송과 결혼하였다. 정설송은 문화대혁명 시기 곤란을 겪다가 병을 얻어 생을 마감했다. 정율성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음악으로 항일운동을 하였지만 남과 북에서 외면당했다. 이제 이념에 의한 역사적 평가는 지양하고 민족의 구성원으로 그의 영혼을 고향에서 떠나게 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역의 역사·사건·인물을 문화예술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첫 열매가 창작곡 '불꽃'이다. '불꽃'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과 진주성에서 순국한 이병장 고경명과 호남의 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담은 창작곡이다. 극단 까치놀과 남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무대극이다. 430년 전 임란을 만나 나라가 어려울 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호남의 병들의 활약을 담은 '불꽃'의 완성도를 높여 다시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공연을 함께 본 주민들과 호남의 병들이 걸었던 오래 전 그 길을 따라 금산성과 진주성을 거쳐 창작곡 계획이다. 남구 민족문화인권과에서 지속해 추진하는 남북 간 교류가 결실을 본다면 개성이나 평양,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상해 등지에서 '불꽃'을 공연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는다. 남구 인문학아카데미는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미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社說

## 풍력발전기 체계적 안전점검 시스템 필요

지난 2일 경북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엉기락처럼 꺾이면서 구조물이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는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이 장면은 지난해 4월 화순군 도암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타워 꺾임 사고를 소환했다. 두 사고 모두 날개(블레이드)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 원인이었다. 2005년 준공된 영덕 풍력발전기는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발전기이지만 화순 풍력발전기는 상업운전 2년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달랐는데 블레이드 균열이 사고로 이어진 점은 같았다.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는 미세한 균열만 있더라도 피로 하중으로 인해 회전 과정에서 균열이 커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핵심 부품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화순 풍력발전기는 노후되지 않았지만 균열로 블레이드가 절실하다.

## 유통법 개정에 맞춰 전통시장 상생 방안도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을 금지했는데 쿠팡 사태를 계기로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소비자들 이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인 국민을 대하는 쿠팡 경영진의 안하무인 태도에 격분한 탓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오프라인 강자인 대형마트를 규제했던 대형마트의 순발을 계속해서 끝는 것은 온라인 소비 행태를 가속화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프라인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 여가와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 전통시장과 골목

## 無等鼓

기생충에 감염된 관상어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어류 기생충은 아가미와 눈 주변에 서식하면서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한 마리가 감염이 되면 어항 속 다른 물고기에게도 연쇄적으로 전염되며 같은 조건에 치료를 해야 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민물에 사는 열대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고, 짠물에 사는 해수에는 반대로 민물에서 치료를 한다. 기생충에 감염된 민물고기를 소금을 푼 물에 일정 시간 담궈두면 기생충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반대로 해수에는 민물에 담그면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다.

야생에서 잡은 물고기를 어항에서 키우기 전 기생충을 먼저 박멸해야 한다. 이 때도 민물과 짠물을 번갈아 이용하면 된다. 기생충도 숙주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기 때문에 민물과 짠물에 걸을 여진다. 익숙하지 않은 물 속에서 버티는 시간이 숙주보다 기생충이 짧기 때문에 '환경 변화'를 이용해 기생충을 제거한다.